발행인 최순삼 / 편집인 김진성 / 발행일 2010월 12월 13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227-0650)

전북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제16호
2010년 12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인사말

아이들에 대한 예의(禮儀)

최 순 삼
(원장, 순창복흥중)

3년 전(前) 이맘때다.

한국 락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신중현 은퇴 고별 공연을 보기 위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 갔다. 가기 전에 아는 분이 가격에 비해 공연이 빈약하다고 했지만, 직접 차를 몰고 갔다. 왜냐하면 가사 한구절로 가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시절, 예술인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분에 대해 기본 예의(禮儀)를 표(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禮)는 정성(精誠)이다. 예는 본래 농경사회에서 하늘에 정성을 다하는 제사 의식으로 출발했지만, 오늘에 와서 예(禮)는 사람에 대한 정성(精誠)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2월 3일 오후 늦게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풍산지역아동센터에 갔다. 11월 20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정성으로 모아진 행사 후원금 전달을 위해서였다. 풍산지역 아동센터는 소년가장 1명과 조손, 다문화 아이들을 포함하여 15명의 유 · 초등생이 방과 후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저녁밥도 함께 먹고 오카리나를 배우고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충만했다. 전체 살림을 꾸려가는 사모님이 아동센터 현황, 아이들의 아픈 사연과 일상을 세세하게 들여 주었다. 아동센터에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녀석들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사모님 얼굴과 낯선 사람들의 얼굴 보고자 들락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뻤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녀석들은 사모님을 어머님처럼 따른다. 지역아동센터는 풍산 아이들의 안식처이다. 그리고 사모님과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돌봄 선생은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모두에게 일일이 예(禮)를 다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훈훈했다. 정년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의 색소폰 연주, 씩씩하고 꾸밈없이 통일을 노래 해준 아이들, 없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쪼개 한 아름 즐거움을 준 초등 선생님들, 수준 높은 첼로 연주와 판소리 한 대목을 해주신 중등선생님, 그리고 가슴 뜨겁게 중창을 해준 전주공고 선생님들의 정성. 3주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독서한마당을 준비한 문화원 '책만세' 와 '읽고살고' 선생님들의 정성. 후원금(1,100여만 원) 모금에 함께 해준 800 분 이상의 귀한 정성. 아이들의 일상이 행복하고 차별 없기를 소망하는 교육감님의 정성을 모아서 예(禮)를 표(表)했다는 안도감으로. 그리고 "최 선생 나는 순창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 좀 부끄럽네. 앞으로 우리 순창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 "오늘 많이 배우고 뜻 깊은 시간이었네요" 적극적인 후원을 해준 교수학습지원과 박 과장님의 고백성 발언도 따뜻했다.

신영복 선생님은 '형(刑)은 인간관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두는 것이지만, 예(禮)는 인간관계를 열게 함으로서 서로에게 최대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구조' 라고 강조하셨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끝임 없이 예(禮)를 다할 것이다. 예(禮)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 드러내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0년 11월 20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밤에 정성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12. 08.

싣는순서

02 인사말 / 최순삼
아이들에 대한 예의(禮儀)
03 혁신학교 연수소식
문화원, 혁신학교 추진에 앞장서다
03 '조정육' 을 통해 옛 그림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다
06 독서한마당의 알찬 하루 / 2010 청소년독서한마당 행사
07 11월의 어느 멋진 날, 문화원의 밤
08 후원금 집행 소식
09 중등교사기행 소식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인을 찾아, 내안의 詩心을 찾아...
11 문화기행 소식
회원동정

문화원, 혁신학교 추진에 앞장서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그동안 공교육의 혁신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전북 혁신학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7월에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화원 내에 '행복학교 추진단' (단장 최순삼 원장) 발족하였으며, 초청강연회, 교사 연수, 간담회 및 워크샵을 꾸준히 벌여왔다.

7월 14일에는 '행복학교추진단' 발족과 함께 "경기도 혁신학교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를 주제로 이광호(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혁신학교의 취지와 목적, 경기도의 혁신학교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 생각하는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130여명의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또한 7월 29~30일(1박 2일)에는 본원, 전북농촌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 익산교육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전북 혁신학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름 연수'를 모악산유스호스텔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성당초등학교, 경기조현초등학교, 충남홍동중학교 등 전국의 학교 혁신의 구체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곳 전북지역에서 혁신학교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후 9월~11월에는 '문화원 행복학교추진단' 이 주최한 혁신학교에 관한 간담회 및 워크샵을 총 5차례 걸쳐 열었다. 워크샵 및 간담회에서는 혁신학교의 올바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함께 토론하기도 하였으며, 지역별 혁신학교 추진 방향과 학교 운영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정우식 부원장(이일여고)을 비롯하여, 이영환 전 사무처장(인봉초), 최병흔 연구소장(체육중)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북지역에 혁신학교의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전북교육연수원이 주관한 '혁신학교 맞춤형 연수' 에는 김윤수 고문(솔내고)을 비롯해 10여명의 문화원 회원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가는 학교인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가는 학교인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0 교사를 위한 가을 강좌

‘조정육’ 을 통해 옛 그림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다.

손 춘 임(전주여고 교사)

나는 그림에 대해 문외한이다. 학창시절 미술수업도 들었고, 그림도 그려 보았지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림 감상법에 대해서는 거의 접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입시과목 위주의 암기공부만 강조되던 학창시절, 잘 하지 못해 점수만 깎이는 예체능을 왜 배우는지 짜증이 난 적도 많았었다. 그런 내가 감수성 예민하던 그 시절에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내가 어른이 된 후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는 힘이 예술에 있다는 것을 이런 저런 여행을 하면서 절절히 느끼기 시작했다. 여행기간 동안 사람들이 환하게 웃을 때, 환호할 때, 행복해 할 때마다 늘 예체능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예체능을 왜 배우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이런 경험들을 수업에 끌어들여 입시에 찌든 아이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맛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분야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집에서 내 아이들과 그림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함께 읽는 것 외에는…….

그러던 내게 그림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주며 조금씩 알게 된 지식을 수업에 활용할 기회가 왔다. 고등학교 근무 경력밖에 없던 내가 처음으로 중학교 발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일반사회를 가르치던 내가 중학교에서 처음 맡게 된 과목은 3학년 사회와 국사였다. 국사!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시험보기 위해 달달 외웠고, 사회에 나와서는 필요해서 나름 책을 읽었었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 막막했다. 그때, 떠오른 생각 하나. 국사 수업에 옛 그림을 끌어오자. 전에 읽었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와 그림책들을 다시 꺼내들고 옛 그림을 수업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다. 아이들이 사회시간보다 국사 시간이 더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나는 전보다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진지해졌다. 박물관에서 하는 옛 그림 전시회를 찾아가서 그림 앞에 서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던 중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림과 대화하는 ‘조정육’ 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 둘(초6, 중3)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교실에 보낸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문화원에서 들고 온 ‘그림공부, 사람공부’ 라는 책은 표지부터 사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다. “옛 그림에서 인생의 오랜 해답을 얻다.” “오랫동안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벗이 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답답한 골방문을 열고 앞서 간 선배들을 보며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며 위로 받고 용기를 얻었던 감사한 마음이 이 책을 읽는 벗에게도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림을 통해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책 앞뒷면에 있는 이 글을 읽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만난다.
이번에는 조정육이란 작가를 만나 옛 그림을 통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현재를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을 통해 그림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으며 나는 조정육이란 작가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내내 잊지 않았던 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실함과 성스러움에 가 닿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쓴 글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림 공부를 통해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라는 서문을 읽으며 조정육이란 작가를 한 번 만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름 독서캠프에서 조정육을 만난 큰아이, 작은아이에게 강연이 어땠는지 물어보며 "너희들은 좋겠다." 고 했었던 그 작가 조정육! 나에게도 그녀를 직접 만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문화원 가을 교양 강좌 '옛 그림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재미있는 한국화 이야기"-' 에서다.

그림 공부를 통해 인생을,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작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면 실현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동양화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언어는 알아듣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 언어를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림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를 알지 못할 때,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림을 보고 있어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색과 형체만을 볼 뿐이다." 그림의 알레고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색과 형체만 보며 그림과 대화할 줄 몰랐던 나에게 인상 깊었던 이 구절들을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음미했다. 작가는 강연하는 시간 내내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리(그림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를 놓아주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냥 막연히 "우와!" 하던 작품들을 의미 있게 바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안겨 준 강연. 전체의 조화를 통해 귀퉁이를 비켜줄 줄 아는 여백. 그 여백을 자신의 삶에 결부시켜 여백 있는 삶의 여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깊이. 그리고 여백이 없었던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작가 조정육은 내게는 정말 신선한 존재였다.

강연 내내 그녀의 그림에 대한 애정과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 오며 내 마음도 훈훈해졌다. 문화원 독서캠프에서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보고 감동했다는 작가. 그런 선생님들 덕분에 조정육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참 멋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다. 그런 행복감에 빠져 나는 '2010 교사를 위한 가을 강좌' 를 마음껏 즐겼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만난다. 이번에는 조정육이란 작가를 만나 옛 그림을 통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현재를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을 통해 그림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강연 이후 나는 그녀의 책 '그림공부, 사람공부' 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돋보기를 손에 들고서 책에 실린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을 통해 삶을 마주하는 그녀의 깊고, 따뜻한 세상 보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는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체험마당, 전시마당, 골든벨, 안도현 시인 강연까지

알찬 하루, '어린이 · 청소년 독서한마당'

"우리 문화원이 주관한 '어린이 · 청소년 독서한마당' 이 지난 11월 20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2010년 한해 활동을 총화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독서 체험과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학생, 학부모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옛날 책 만들기, 압화 책갈피, 솟움책, 책놀이, 한마디 판, 전통놀이 등 손수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펼쳐지고, ▲활동 도서, 독서캠프 역사, 독서 자료집, 사진전 등이 전시되었으며, 어린이 · 청소년 독서문화교실 운영 사례발표도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골든벨' 은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열기와 호응이 특히 뜨거웠다.

우리 문화원은 올해로 3년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삼성꿈장학재단' 으로 개칭)' 으로부터 해마다 7~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움터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정책토론회를 비롯한 청소년통일한마당, 어린이 체험교실, 교사연수, 초청강연 등의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며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를 지원하여 학교별 어린이 · 청소년 독서문화교실과 독서캠프 등을 연중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미영 이사장은 이날 인사에서 "초 · 중 · 고 교사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무보수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며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참된 교육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문화원이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어린이 · 청소년 독서교실/캠프, 학교별 독서문화교실/캠프 등 독서사업을 총화하는 자리였다. 국립전주박물관 마당에는, 벌써 12회를 맞은 독서캠프와 2005년 이후 매달 진행해온 독서교실의 모습을 담은 현수막들이 사열하듯 펄럭이고 있었다. 학기말 시험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초?중학생들이 참가했다. 전시마당에는 학교별 독서문화교실/독서캠프, 문화원의 어린이 · 청소년 독서캠프와 독서교실의 활동사진이 현수막으로 전시되었고, 각 학교의 독서교실 내용을 담은 파일 철과 활동도서가 함께 전시되었다.

특히 체험마당은 대성황이었다. 밤늦게까지 준비회의를 거듭하며 준비한 체험마당에서는 독서퍼즐, 만들기 체험, 독서퀴즈, 책제목 찾기 등의 활동을 했다. 마당마다 체험 한 스티커를 모아 오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상 깊은 구절을 담아 부채와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에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준비한 재료가 일찍 동나기도 했다. 고등학생들이 각 체험마당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초?중학생들을 위해 전시마당 안내, 사진 촬영, 체험활동 진행 등을 돕는 모습은 보기가 좋았다.

또 본원 자문위원이기도 한 안도현 시인이 직접 초청강사로 나서 「유년시절에 읽은 책」을 주제로 강연한 세미나실은 통로까지 빼곡히 앉고 선 학생들로 들어서기조차 힘들었다. 힘들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적게 오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한 교사들은 많은 참여와 뜨거운 열기에 한껏 고무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위해 더욱 열정적인 활동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중등독서교육연구모임 '책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책만세)' , 초등독서교사모임 '읽고 살고' 선생님들은 그동안 우리가 활동해온 독서교육의 역사를 증명하는 현수막 속에서, 책이랑 재밌게 노는 아이들 속에서, 서로의 고생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참가학생 소감

어린아이들이 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책을 멀리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 전라고 1년 권기복**

초등학생, 중학생,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겁게 독서한마당을 해서 뜻깊은 체험활동이 되었고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책들과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 전라고 1년 정성옥**

봉사활동을 참여해서 독서활동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참 다양한 활동이 소개되었다. 시간이 없어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이 아닌 체험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 전라고 1년 백현준**

이번 봉사활동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독서활동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책과 활동지를 소개하는 분야를 맡았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활동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기가 힘들었다. 부스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안내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 전라고 1년 장효진

봉사활동 하러 갈 때는 설렘, 봉사활동 후 집에 올 때는 보람과 즐거움, 뿌듯함으로.

- 전라고 1년 김태근

어느새 나는 3학년이 되었고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독서교실에 참가한지는 2년, 책만세독서토론회는 3년내내 참가했었다. 그런데 그 둘이 연계된 행사가 열린다기에 나는 즐겁게 박물관으로 갔다. 각종체험행사 특히 책이름 맞추기와 한 음절의 글자를 대면 조원이 모두 돌아가며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는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고 교과서에만 보던 작가 안도현시인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왠지 조용조용하시리라 생각되었는데 의외로 유머러스하셔서 놀랐다. 기회가 닿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

- 전주신일중 3년 송수민

국립전주박물관은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힘들었다. 부채 만들기를 하고 싶었지만 재료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다음엔 재료를 넉넉히 준비해서 모두 즐기면 좋을 것 같다. 퍼즐 맞추기, 책제목 알아맞추기, 모둠대항 초성으로 단어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이 많아서 좋았다. 비석치기는 독서○×문제를 맞추어서 하는 것었는데 답을 잘 몰라서 안타까웠다. 안도현시인과 만나서 재미있는 강연을 들었다. 장소는 좁았지만 우리 수준에 맞고 좋았다.

- 전주신일중 1년 이하영

문화원의 밤 소식

11월의 어느 멋진 날, 문화원의 밤

청소년 문화원은 2011년을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과 같은 눈높이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음해를 준비할 계획이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감출 수 없는 끼와 재능이 모인 문화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20일 성황리에 끝이 났다.

우리 문화원은 한해를 마감하며 청소년들의 배움의 터를 넓히고 참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은 회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늦은 5시, 사무처장 노장환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전북겨레하나)' 이 제6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북겨레하나는 출판물과 영상을 손수 제작 · 배포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문화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우리 문화원은 '2010 활동 영상보고' 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고 2011년 문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문화공연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참석자 모두가 사람과 공연, 생각과 사랑을 함께 향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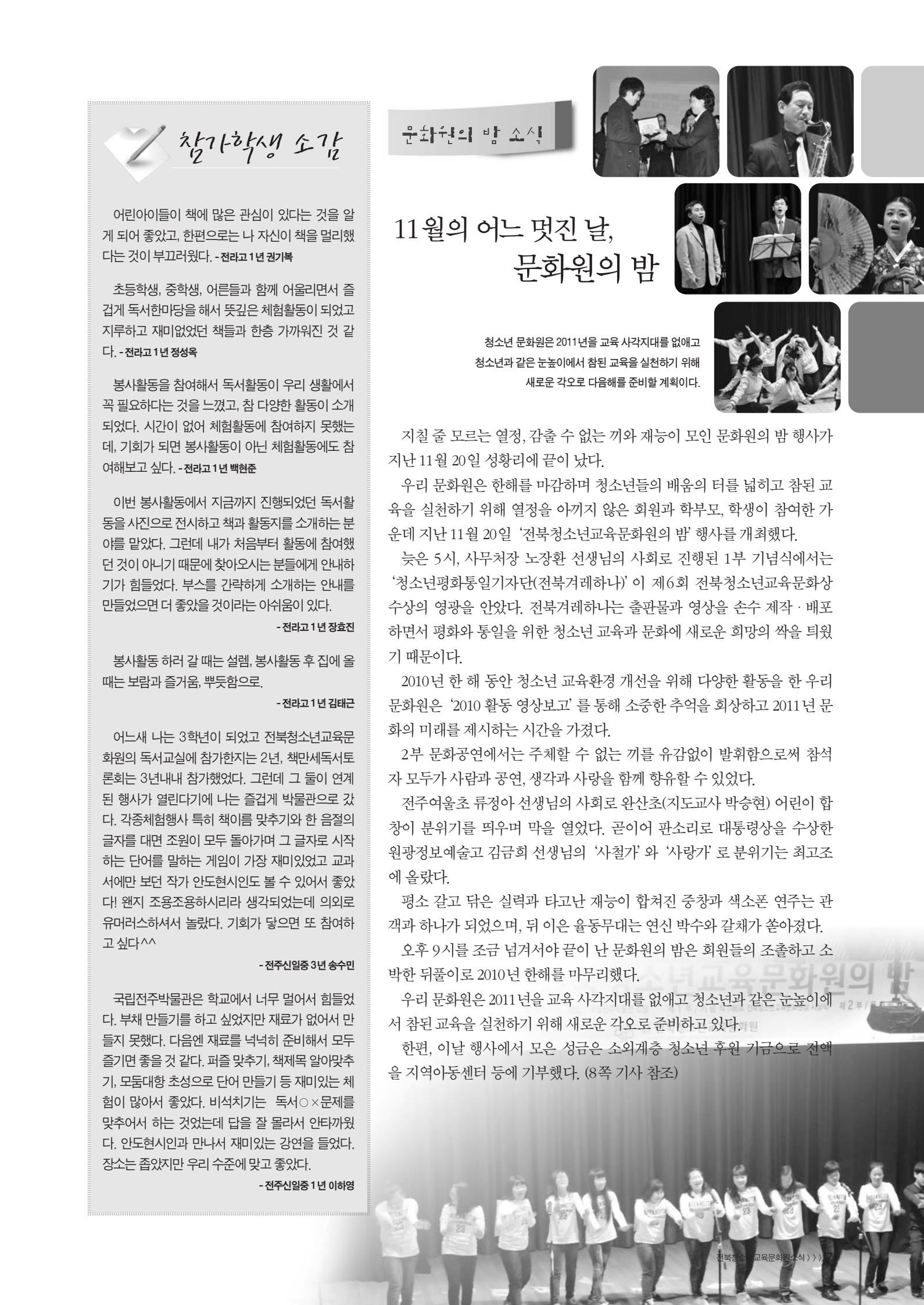
전주여울초 류정아 선생님의 사회로 완산초(지도교사 박승현) 어린이 합창이 분위기를 띄우며 막을 열었다. 곧이어 판소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원광정보예술고 김금희 선생님의 '사철가' 와 '사랑가' 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다.

평소 갈고 닦은 실력과 타고난 재능이 합쳐진 중창과 색소폰 연주는 관객과 하나가 되었으며, 뒤 이은 율동무대는 연신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다.

오후 9시를 조금 넘겨서야 끝이 난 문화원의 밤은 회원들의 조촐하고 소박한 뒤풀이로 2010년 한해를 마무리했다.

우리 문화원은 2011년을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과 같은 눈높이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은 성금은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 기금으로 전액을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했다. (8쪽 기사 참조)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소외계층청소년돕기 성금 모금액 11,215,000원
-지역아동센터 등 11개 시설에 전액 기부-

2010년 소외계층 청소년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제 6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행사에서 많은 회원들의 동참으로 총 11,215,000원이 모금되었다. 우리 문화원은 모금된 성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모금 전액을 전미지역아동센터 등 11개 시설에 100만원씩 기부하였다. 서전주중학교 강지연선생님께서 기부해주신 자전거는 서신초등학교 김00 어린이에게 전달되었으며 11월20일 독서한마당 행사에서 기증된 책중에서 중등도서 10종 18권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 문화 공간을 마련한 '책.꿈.사'에, 초등권장도서 11종 17권은 우리마을 꿈꾸는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리고 남은 성금 215,000원은 어린이 도서를 구입,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약 25명 정도로 운영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주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가정의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과 후 9시까지 아이들의 공부와 생활을 담당해주고 있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부한 곳]

지역	기부처	기부액
전주	우리마을 꿈꾸는 도서관	100만원
	전미지역아동센터	〃
익산	책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 (청소년문화공간)	〃
	구세군 배산지역아동센터	〃
부안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
무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
정읍	하부지역아동센터	〃
김제	회성지역아동센터	〃
완주	샘솟는지역아동센터	〃
순창	풍산지역아동센터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전북이주여성쉼터	〃

전주 서신지역문화공간"싹"

전주 전미지역아동센터

익산 책쉼터 "책만보는바보"

익산 구세군 배산지역아동센터

부안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무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정읍 하부지역아동센터

김제 회성지역아동센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인을 찾아, 내 안의 詩心을 찾아...

청명한 가을날 책만세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인 '정지용'과 '오장환'을 찾아 충청도로 길을 나섰다. 학생 26명, 인솔교사 9명, 교사들의 꼬마둥이 5명 모두 40명이 참가한 이번 문학 기행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그린 배유안의 소설 '초정리 편지'를 읽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인들의 시를 찾아 나서는 여행길이었다.

시인 정지용과 오장환! 이들은 우리 세대 교사들에게는 퍽이나 낯선 시인들이다. 학창시절 우리가 읽은 교과서에 그들은 문학사적인 입지와는 상관없이 월북 시인이라는 이유로 정ㅇㅇ, 오ㅇㅇ으로 존재했다. 1988년 해금과 더불어 제대로 된 이름을 찾은 이들의 시는 교과서에 당당히 입성했고 특히 정지용은 '향수'라는 시가 노래로 불러져 대중들에게 친숙한 시인이 되었다. 현대사의 질곡이 만들어낸 시인들의 우여곡절도 이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전주에서 출발하여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옥천에 위치한 정지용의 생가와 문학관은 이미 문학청소년들로 만원사례였다. 실개천이 휘돌아나가는 곳에 자리잡은 정지용 생가 초입에는 '향수' 시비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간 생가는 담박한 선비의 집을 연상하게 만드는 삼간초가집이다. 생가 바로 옆에는 정지용문학관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시체험관, 정지용의 연보, 영상실 등의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정지용의 시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워크북의 빈 칸을 마련해 두었더니 학생들은 제법 진지하게 시를 읽고 빈 칸을 채워하는 문학도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에 놀란 해설사의 칭찬에 교사로서의 자부심 가득한 미소로 화답하며 학생들의 어여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점심을 먹고 찾은 곳은 역대 정지용문학상 수상자의 시비가 있는 '멋진 신세계'이다. 이곳은 대청호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잡아 숲과 호수가 어우러져 저절로 시심이 우러날만큼 아름다운 가을날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곳은 걸으면서 벤치에 써 있는 시 한 줄을 읽고,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정지용문학상 시비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가을 풍경과 시에 흠뻑 취할 수 있게 만든 가을 산책로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둠

2010, 책만세와 함께 떠나는 가을 문학 기행

학교와 학원에 지친 아이들에게
가을햇살과 아프지만 아름다운 시인의 삶과
시를 보여줄 수 있었던 문학기행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문학 선물이 되었으면 …

별 퀴즈를 통해 배유안의 '초정리 편지' 내용 퀴즈와 정지용이 생애와 시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활기찬 시간도 가져보았다. 인솔 교사 9명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새로운 퀴즈 방식에 아이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과자 상품이 주어지는 모둠별 퀴즈는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이 함께 한 가을 잔치 그대로였다.

열띤 퀴즈를 통해 얻은 과자를 맛있게 먹고 출발한 곳은 '오장환 문학관' 이었다. 보은에 자리잡은 문학관은 정지용의 제자답게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우리를 맞이하였다. 휘문고등학교 시절 스승 정지용과의 만남은 시인 오장환의 운명인 듯 하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이들의 생일이 같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인연이 있어 정지용이 월북한 이유가 제자 오장환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후대 사람들의 추측도 억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장환은 고작 28해의 짧은 생애를 살다갔지만 무려 5편의 시집을 내기도 했다.

이곳은 다른 문학관과 달리 가마솥이 있어 학생들에게 고구마를 쪄줄 수 있다는 반가운 말씀에 학생들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사이에 교사들은 고구마를 씻어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연기를 먹으면서 겨우 지핀 불에 고구마가 맛있게 익어갈 동안 우리는 잔디밭에서 정지용의 시 '향수' 를 모둠별로 외기를 했다.

청명한 가을 햇살과 잔디밭, 감이 주렁주렁 익어가는 감나무가 있는 가을 풍경에서 한 가운데 서서 시를 외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시인 정지용과 그의 제자 오장환도 흐뭇한 웃음을 지었으리라. 시낭송이 끝난 후 기다리던 고구마를 잔디밭에 옹기종기 앉아 먹기 시작했다. 고구마 먹기를 끝낸 꼬마둥이들은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닌다.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잔디밭과 파란 하늘에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예정보다 1시간이 넘게 초과해 있었다.

예정시간보다 늦어지면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애타는 것을 아는 터라 학생들에게 부모님들께 좀 늦어질 거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독촉했다. 해가 기울어지면서 바로 서늘해지는 가을 날씨를 걱정하며 애들을 다그쳐 버스에 올라타게 했다. 버스에 오르니 학생, 교사, 꼬마둥이 모두들 조용하다. 어느새 곯아떨어졌는지 달디단 숙면을 취하고 나니 호남제일문이다. 깜깜한 7시가 넘어 전주에 도착했지만 짜증내는 모습없이 인사하며 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번 문학기행은 학생들에게도 좋았구나 라며 자족을 해본다.

학교와 학원에 지친 아이들에게 가을햇살과 아프지만 아름다운 시인의 삶과 시를 보여줄 수 있었던 문학기행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문학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선물처럼 아름다웠던 가을날의 문학기행에 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감동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 뿌듯했던 가을날이었다.

문화기행

북악산 서울 성곽길을 따라 걷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떠나볼까? 볕 좋은 가을날, 초등가족들의 나들이 계획을 짜느라 행동대장인 임동연 회원이 며칠 바삐 움직이더니 여행 장소가 결정되었다. 이번엔 북악산 성곽길을 한번 걸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리고 기왕에 서울에 갔으니 문화적 욕구도 충족해야겠기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리얼리즘' 전도 관람하기로 했다.

10월 10일 일요일, 초등가족 30명을 태운 버스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덕수궁 미술관이었다. 그 날은 '아시아 리얼리즘' 전의 마지막 날이었다. 덕수궁 안에서는 때마침 북페스티벌도 열리고 있어 좋은 책들을 보는 기쁨도 덤으로 얻었다. 점심은 북촌로 쪽으로 이동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나고 자란 조경희 선생님 안내 덕분이다. 조경희 선생님의 이모님이 북촌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셔 맛있는 삼계탕과 만둣국으로 점심을 든든히 먹을 수 있었다. 식사 뒤 우리는 서울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북악산길로 버스를 달렸다.

북악산은 바로 청와대 뒷산이고 우리가 가려는 곳은 서울 성곽길이다. 북악산이 개방된 것은 3년여 밖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한 산이다. 1박2일이라는 TV프로그램에 전격 소개되고 나서인지 성곽길을 찾은 인파로 좁은 길이 더욱 좁게 느껴졌다.

북악산 서울 성곽길을 탐방하려면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3시 안에는 신분 확인이 끝나야 한다. 40여 년 전,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로 인한 총격전이 격렬하게 벌어진 이후 북악산 탐방길이 폐쇄되었고 3년 전쯤에서야 전격 개방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TV에 소개되고 난 직후라서인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춰 신분 확인을 마친 뒤 고대하던 서울 성곽길을 따라 북악산을 올랐다.

한창 예쁘게 물들어가는 산 인근의 가을과 낮은 집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경치를 보여주었다. 2시간 정도 산을 오르내리며 1?21사태 총알 맞은 소나무, 북악산에 방사해 놓은 꽃사슴 3마리와 도마뱀도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북악산을 지키는 총을 든 군인들을 가장 많이 만난 것 같다.

342m로 높지는 않지만 성곽을 따라 걷는 맛이 색다른 북악산! 오전에 북악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길을 따라 걷는 그런 여행이라면 하루 코스로 충분하리라. 참,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신분증을 꼭 가져가시라. 북악산을 오른다고 가장 설레어 했던 정** 선생님은 결정적으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북악산을 오르지 못하셨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신입회원(가입일순)

정 영 희(전주공고)
이 용 규(전북사대부고)
김 혜 진(전주공고)
이 미 영(마한교육문화회관 익산분관)
김 도 영(학부모)
박 정 선(학부모)
박 금 숙(김제원평초)
이 민 경(전주우림초)
이 진 선(김제원평초)
배 명 남(대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회원동정

▶ 지난 11월 김용훈 회원이 백년가약을 맺으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이영환(전주 인후초-전 사무처장), 주중일(익산금마초), 임현주(무주부당초) 회원이 2010년 11월에 실시한 전북교육청 초등연구사 선발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북교육혁신에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130구좌(매월 65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I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부족 및 기타사유로 출금이 안된 경우 다음 월에 합산하여 출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905-0218

회원 가입 원서

이 름	(남, 여)	생 년 월 일	
학 교 명		담 당 교 과	
학 교 주 소		학 교 전 화	
손 전 화		집 전 화	
E - mail			
자 택 주 소			

＊ 관심 분야 (2개 ∨표)

( ) 청소년 정책	( ) 통일 · 역사	( ) 성교육
( ) 청소년 인권 · 복지	( ) 지역교육 · 교육자치	( ) 학부모 교육
( ) 청소년 문화 · 동아리	( ) 환경	( ) 인터넷 · 정보
( ) 독서교육	( ) 학급운영	( ) 학교운영위원회
( ) 초등교육	( ) 진로 · 상담	( ) 기타

※ 홈페이지에(www.blue21.or.kr)서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